



남원시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회경제 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원시 매니페스토 우수상

2년 연속... 천년의 향이 스며있는 옷칠 목공예산업에서 높이 평가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회경제 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2일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후 2연속 수상이며 15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후 2년 연속 시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기초단체장의 민선6기 2년차 공약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경진대회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307개 사업이 응모해 1차 서류심사 통과, 2차 사례 발표로 7개 분야에서 치열한 경연을 벌였다. 남원시는 사회경제 분야에 「천년의 향이 스며있는 남원시 옷칠 목공예산업」이라는 주제로 응모하였으며, 공약 이행도 선진형 옷칠목공예산업의 활성화 및 성과 사례 제감도 앞으로 기대 및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옷칠 장과 목기장을 보유한 옷칠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민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라져가는 옷칠목공예가 옷칠 생활용품과 첨단산업을 통해 21세기에 더욱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옷칠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남원시는 2014년부터 총사업비 45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추진한 지역연고 육성사업(RIS), 목공예부흥 프로젝트를 위한 창조지역사업,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 등 옷칠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옷칠산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가고 있다. 현재 남원 옷칠 목공예산업은 기존 목공예 제작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대 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생활 품목의 변화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

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하며 지역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민선6기 2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30개 공약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행을 제고에 노력하여 남원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공약을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 5대분야 30개사업 중 14개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추진 16개 사업이며 추진률 47%로 공약사업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 홈페이지 구축 및 공약사업 조정사항을 시민을 통해 평가 받는 등 공약 사항 이행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행을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공공승마장 체험관광프로그램 가시화

57억원 투자 · 10월 완공

순창군 공공승마장이 10월 완공을 앞두고 강천산 ~ 공공승마장 ~ 고추장민속마을을 잇는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군은 최근 팔덕면 구룡리 5-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9,777㎡ 규모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는 공공승마장이 공정률 60%를 넘어서 10월이면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공승마장 조성이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군민 여가선용·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순창공공승마장은 매년 130만 명이 방문하는 강천산과 고추장 민속마을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3곳을 묶는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시 체류형 관광객 유치라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 올해 공공승마장 인근에 완공되는 축산진흥센터도 본격 운영되면 음식관광과도 연계되어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와 광주 등 인근 대도시와 30분 안에 드는 지리적 이점도 큰 장점이다. 군은 힐링 승마길 조성, 승마용 조련센터 유치, 말 상설 공연장 설치 등 승마장을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 중이다. 군은 승마장 완공 시 군민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마는 상체와 하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켜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허



리온통과 골반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군은 유소년 승마단 운영, 청소년 승마체험 운영 등을 통해 군민들이 승마를 즐길 수 있는 토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승마체험인구는 83만 406명, 정기적 승마 이용객은 4만 2,974명, 말 사육두수는 2만 6,330두로 알려져 있다. 말산업 사업체수도 2,052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산업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리온통과 골반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군은 유소년 승마단 운영, 청소년 승마체험 운영 등을 통해 군민들이 승마를 즐길 수 있는 토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승마체험인구는 83만 406명, 정기적 승마 이용객은 4만 2,974명, 말 사육두수는 2만 6,330두로 알려져 있다. 말산업 사업체수도 2,052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산업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맞춤형 급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효과 '톡톡'

남원시, 6월 357가구(10%) 증가 · 급여지급액 10만원 늘어

남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급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특효를 나타냈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는 2000년부터 시행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개별급여별 선정기준을 확대, 급여대상별 특성과 최저보장 수준을 반영한 제도로.

남원시는 맞춤형급여 개편 후 지난 6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3,915가구로 개편 전인 지난해 6월 3,558가구에서 비해 357가구(10%) 증가했으며, 가구당 급여지급액도 평균 10만원 늘었다. 이는 이번 맞춤형급여 시행 후 제도적인 기준 완화와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 및 찾아가는 복지 상담회 운영, 읍·면·동 담당자들의 발로 뛰는 적극적인 현장행

정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조환익)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복지허브'를 통한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에 힘을 쏟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급여는 연중 신청가능하며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노인 바둑·장기대회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 소통 화합의 장 마련

임실군이 후원하고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지회장 김학성)가 주관하는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장 배 노인 바둑·장기대회가 지난 22일 대한노인회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와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심민 군수를 비롯한 문영두 군의회의장, 유관 기관 단체장, 읍면 대표선수, 노인회 임원, 심관 등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심민 군수는 축사를 통해 "바둑과 장기는 깊은 생각을 요하는 경기로 치매예방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대회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군을 대표해 '제8회 전라북도 연합회장배' 경기의 출전 기회를 갖는다. /임실=진홍영 기자

회 임원, 심관 등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심민 군수는 축사를 통해 "바둑과 장기는 깊은 생각을 요하는 경기로 치매예방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대회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군을 대표해 '제8회 전라북도 연합회장배' 경기의 출전 기회를 갖는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마을세무사 제도 '호응'

국세 · 지방세 무료 상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들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지방세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관련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창군은 지난 6월 '마을 세무사'로 김성수 세무사를 위촉하고 전화(063-561-2535)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

시 상담을 받고 있으며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에는 보다 심도 깊은 상담을 위해 군청 민원상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장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오는 8월에는 휴가철에 따라 현장 세무 상담 서비스가 8월 24일에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재능기부라는 좋은 취지의 마을세무사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560-2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사회봉사단체 회장 취임식 잇따라

임실 로타리클럽 제49대 이종권 회장과 오수 라이온스클럽 40대 이종춘 회장이 22일 각각 취임식을 개최했다. 임실 로타리클럽은 지난 22일 임실군민회관에서 내외빈 및 로타리클럽 회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대 광덕훈 회장 취임식과 함께 49대 이종권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종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로타리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과 임실로타리 클럽 발전에 혼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또한, 오수 라이온스클럽은 22일 오수의견공원 문화체육센터에서 39대 정창훈 회장 취임식과 40대 이종춘 회장이 22일 각각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종춘 신임회장은 "오늘 뜻 깊은 창립 39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따뜻한 사람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약속한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심민 군수는 "오수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의 희생과 봉사가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베리&바이오연구소 복분자 산업 세미나 개최

의약품 소재화 방안 논의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복분자 시장의 전망 및 식의약품 소재화'를 주제로 고창 복분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는 박우정 군수와 관내 복분자 식품업체 관계자, 군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이경태 교수는 복분자 산업의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복분자'의 의약품 소재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대비 약 35%의 복분자를 생산

하고 있는 고창군은 전국 최대 복분자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동안 신활력사업, 관광벨리사업, RIS사업 그리고 연구소의 태동인 산자부R&D 사업 등 국비지원을 받으며 식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다수의 경쟁 베리의 출현으로 상대적으로 복분자의 식품화 기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어 연구소는 복분자 산업의 재도약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박우정 군수는 "복분자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와 같이 복분자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찾는 시도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며 "복분자 산업이 계속해서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의료원

임실 강진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

임실군이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발 빠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심민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보건소 물리치료실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인 물리치료실 개설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자 증가로 질병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간섭전류치료기 등 7종의 물리치료기기와 기자재를 비롯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물리치료실 개설로 주민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 공무직노동조합 출범식

전국공무직노동조합 고창군지부(지부장 백대운)가 지난 22일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고창군공무직노동조합 안남귀 부위원장, 한국노총 두원진 전북본부의장, 이상선 전국공무직위원장과의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백대운 지부장은 "출범식을 계기로 조합원이 하나 된 마음과 목소리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단결된 모습을 보인다면 조합원 모두의 바람이 실현될 것"이라며 믿음과 사랑, 단결된 모습과 헌신을 당부했다. 고창군공무직노동조합 고창지부는 지난 2015년 6월에 결성 고충노동부에 가입신청하고 지난 3월에 단체교섭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6월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 남계파출소 자살기도자 구해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남계파출소(소장 이동권)에서는 병조각으로 자살시도한 사람을 신속한 출동과 응급조치로 구조해 화제다. 남계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 50분경 남계리 소재 정각에서 A(남)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병 조각으로 양손을 묶어 자살을 기도한다는 신고를 접하고 2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잠곡서경위와 강명구 경위는 이를 즉시制止하고 응급지혈 조치 후, 순창의료원으로 긴급후송 병합수술 치료 후 안전하게 귀가시켜 한 생명을 구했다. 조사결과 30대 초반의 A씨는 최근 부인과 이혼을 하고 신병을 비판하던 자살을 기도했던 것으로 앞으로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상담하여 현재 안정을 찾은 상태이다. 이동권 파출소장은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신속한 출동과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인문학 특강 열려

'인문학으로 만나는 배움과 행복한 삶 이야기' 인문학 특강이 지난 21일 오후 남원시청에서 열렸다. 남원시 공무원과 시민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에서는 뿌리 지식인 인문학을 통해 삶에 대한 갈증과 궁핍증을 풀어내는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또한 역사, 철학, 문학을 통해 인간과 연결되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배움의 과정이 되고 그 배움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다. 특강 강사로 초빙된 최윤실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교육부 국가자격 정책심의회 위원,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평생교육분야 최고의 권위자이다. 최 교수는 현재는 대한민국 평생교육진흥재단 대표와 아주대학교에 재직하며 강연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